

● 제303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2022년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1. 12. 2.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2022년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 서울특별시장 제출 】

### I. 총 괄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1. 11. 1.
- 회 부 일 : 2021. 11. 1.
- 의안번호 : 2943

### II. 예산안 개요

#### 1. 세입

- 해당사항 없음.

#### 2. 세출

- 2022년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은 3억 7,490만원, 정무부시장실은 1억 9,660만원임.

<표-1> 2022년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 (A)	2022년 예산안 (B)	증감	
			금액(B-A)	비율(%)
시장비서실	351,900	374,900	23,000	6.5
정무부시장실	197,800	196,600	△1,200	△0.6

○ 2022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의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시장비서실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만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8,710만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80만원임.

- 정무부시장실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임.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1. 세입

- 해당사항 없음.

#### 2. 세출

##### 가. 시장비서실

- 2022년도 시장비서실 세출예산은 **업무추진비**<sup>1)</sup>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보다 2,300만원 증액된 3억 7,490만원이 편성되었음(표-2).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 증액되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억 8,71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78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되었음.

<표-2> 2022년도 시장비서실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 (A)	2022년 예산안 (B)	증감	
			금액(B-A)	비율(%)
계	351,900	374,900	23,000	6.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0	80,000	20,000	33.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7,100	287,100	-	-
시 장	277,200	277,200	-	-
비 서 실 장 (2 급)	9,900	9,900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0	7,800	3,000	62.5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그 성격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분된다(「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sup>2)</sup>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는 2015년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sup>3)</sup> 통보(2015. 4. 23.)에 따라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8억 6,000만원씩 감액 편성해왔고, 시장비서실 역시 연 2,000만원 정도를 삭감해 편성해왔음.
- 5년이 지난 2022년부터는 감액 처분을 받기 이전의 수준(1억 300만원)으로 편성할 수 있지만, 그동안의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집행률과 기관별 시책업무추진비 배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난 5년간 감액 편성해온 규모(8,000만원)를 그대로 유지하였음<sup>4)</sup>.
- 기관운영업무추진비<sup>5)</sup>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시장은 2억 7,720만원, 시장 비서실장(2급)은 990만원이 편성되었음<sup>6)</sup>.
- 부서운영업무추진비<sup>7)</sup>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실·과 정원 수에 따라 편성됨(표-3).

---

2)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주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보,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현장)부서 근무자 격려·지원, 유관기관 협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는 경비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조문별 해설,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p.49).

3) 2010~2014년 서울시가 본청 4급 과장과 5급 팀장에게 각각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위반한 부정적인 집행으로 판단했음.

4) 담당 주무관 유선 확인 결과(확인일: 2021. 11. 25.)

5)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 운영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소속 직원 격려·지원, 유관기관 협조, 지역 홍보, 이재민·소외계층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 예산 편성 목적과 경비 집행 성격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조문별 해설).

6) 2018년부터 자치단체 유형별·직위별 금액기준을 폐지하고, 자치단체가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한 총액한도 내에서 지급 대상과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음(「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p.47).

7) 통상적인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시·도의 경우 실·과 정원수에 따라 편성됨(「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p.51).

<표-3> 2022년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

구 분	기준액
정원 5명 이하 실·과	월 100,000원
정원 10명 이하 실·과	월 175,000원
정원 15명 이하 실·과	월 250,000원
정원 20명 이하 실·과	월 300,000원
정원 25명 이하 실·과	월 350,000원
정원 30명 이하 실·과	월 400,000원
정원 31명 이상 1명 초과 시	5,000원 추가

자료: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 시장비서실의 경우 지난 9월 초 정무부시장실 인력 중 정무수석비서관을 포함한 별정직 정원을 이관<sup>8)</sup>하여 34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고, 이 외에 정원 외 3명<sup>9)</sup>과 지원근무 2명이 근무 중임(행정국 총무과 제출 자료, 제출일: 2021. 11. 26.).
- 정원이 34명인 시장비서실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원 31명 이상’의 기준액을 산출근거로 해야 하지만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정원 30명 이하’의 기준액을 산출근거로 하고 있으며, 정원 조정과 함께 없어진 조직(정무수석실)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따로 편성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비서실 정원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 편성하였음(표-4).

<표-4> 2022년도 시장비서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편성(안)

예산과목 및 내역		
(100-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단위: 천원)
◦시장실(정원 25인 초과 30인 이하)	400,000원*1개부서*12월=	4,800
◦정무수석실(정원 10인 초과 15인 이하)	250,000원*1개부서*12월=	3,000

8) 시장단 별정직 공무원 정원조정 계획(조직담당관-9595)

9) 시장비서실 정원 외 2명(전문임기제) + 정무수석비서관

- 최근 3년간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시책업무 추진비의 경우 2020년과 2021년(10월 말 기준) 각각 63.2%와 37.6%라는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는데, 이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 초까지 시장권한대행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소극적인 시책 운영 활동에서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표-5).

〈표-5〉 최근 3년간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021. 10. 31. 기준, 단위 : 천원, %)

과목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19	80,000	79,060	940	98.8
	2020	80,000	50,520	29,480	63.2
	2021.10.	60,000	22,555	37,445	37.6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19	287,100	258,869	28,231	90.2
	2020	287,100	266,548	20,552	92.8
	2021.10.	287,100	150,046	137,054	52.3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9	3,600	3,600	-	100
	2020	4,200	3,555	645	84.6
	2021.10.	4,800	2,131	2,669	44.4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 취임 이후 10월 말 기준으로 약 7개월 동안 집행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7.59%<sup>10)</sup>에 불과한 것은 시장비서실이 주요 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이지는 않았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비서실은 효율적인 시정 보좌와 정무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무수석비서관과 이하 인력을 시장비서실로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무 활동의 가시적인 성과는

10) 2021년 시장비서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최초 집행 시기(2021. 4. 10.)가 신임 시장 취임 이후임.

확인하기 어려운바, 조직을 정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나. 정무부시장실

- 2022년도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총 1억 9,660만원이 편성되었음(표-6).

<표-6> 2022년도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 (A)	2022년 예산안 (B)	증감	
			금액(B-A)	비율(%)
계	197,800	196,600	△1,200	△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3,600	193,600	-	-
정 무 부 시 장	193,600	193,600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3,000	△1,200	△28.6
정 무 부 시 장 실	1,200	3,000	1,800	150
정 무 수 석 실	3,000	-	△3,000	△1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원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한 총액한도 내에서 편성되었음.
- 실·과 정원 수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 비서실과 마찬가지로 지난 9월 초 시행된 정원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월 10만원씩 총 120만원(정원 4명)을 편성해야 했으나, 산출근거에 맞지 않는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음.
  - 기존의 정무수석실의 몫으로 편성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정원 조정

후 시장비서실로 이관됨.

- 최근 3년간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기관 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2019년 100% 전액 집행하였으나 2020년 82.23%, 2021년(10월 말 기준) 47.6%로 부진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음(표-7).

**<표-7> 최근 3년간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021. 10. 31. 기준, 단위 : 천원, %)

과목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19	193,600	193,768	-	100
	2020	193,600	159,202	34,398	82.2
	2021.10.	193,600	92,140	101,460	47.6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9	4,200	4,215	-	100
	2020	4,200	4,119	81	98.1
	2021.10.	4,200	2,002	2,198	47.7

- 특히 2021년(10월 말 기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7.6%라는 집행률은 지난 4월 신임 시장이 취임함에 따라 정무부시장 역시 새로 임용(‘21. 4. 30.)되었지만 정무부시장을 보좌할 인력을 갖추지 못한 채 정무부시장실 인력만으로 활동한 데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임(표-8).

**<표-8> 정무부시장 임용 후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시 정무부시장실 정·현원 상황**

(매 회기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기준, 단위: 명)

	제300회			제301회, 제302회			제303회		
	총계	일반	별정	총계	일반	별정	총계	일반	별정
정원	15	4	11	13	2	11	4	2	2
현원	2	2	-	4	2	2	4	2	2

- 정무부시장실은 대의회·국회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정당과 소통하여 협치 시정을 구현하며, 대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주요 시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부시장 임용 이후 내내 정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현원으로 제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게다가 9월 이후에는 아예 정원 자체가 대폭 감원되어 사실상 보좌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정무부시장실은 향후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쇄신 방안 등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임.

#### 다. 예산안·결산 중복 심사 문제

-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이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예산안·결산 예비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행정국-시장비서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시민소통기획관-정무부시장실) 심사가 중복되는 상황은 운영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 시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임.
- 예·결산 심사의 중복과 혼란을 방지하고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예산을 업무 지원 부서(행정국,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분리·편성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함.